

# 선동열의 반성문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 “팀 체질개선 위해 사퇴 불사”...KIA 구단 홈페이지에 올려 “한번만 더 믿어보자” “그냥 떠나세요” 팬 댓글 폭주

올 시즌도 KIA 타이거즈는 팬들에게 편지를 썼다. 사실상의 ‘반성문’이다.

2013년 10월8일 KIA는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에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초라한 성적을 남겨 죄송하다. 임직원 일동은 올 시즌 부진을 통렬히 반성하여 내년 시즌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이었다. 구단은 백업선수 육성, 부상 방지 및 관리, 유망주 발굴 및 육성 등을 약속했다. 1년이 지난 22일 KIA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

동열 감독) 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IA타이거즈 선동열입니다”로 시작한 글에서 선 감독은 “재계약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다. 팬 여러분에게 실망시키고,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팀 체질 개선과 전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기초가 튼튼한 팀을 우선 목표로 주전과 백업의

기량차 줄이기, 수비 보강, 중장거리 포지션별 유망주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두 번째로 근성을 가진 끈질긴 팀을 얘기하며 승패에 앞서 끈기 있는 야구, 코치와 선수들도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며 의기투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수단과의 소통을 말했다. 선수를 믿고 배려하면서 신뢰를 쌓겠다는 얘기였다.

선 감독은 “3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달라진 KIA를 만들겠다. 내년 시즌 성적 부진시 사퇴도 불사한다는 마음가짐과 각오로 감독직을 수행하겠다. 개인적으로도 명예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고도 호소했다.

장문의 편지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홈페이지가 마비 될 정도로 팬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게시 반나절 만에 클릭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이 글은 각종 야구 게시판으로 옮겨지면서 다른 구단 팬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기대와 달리 결과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다.

“안타깝다”, “한번 더 믿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취임 때부터 했던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명예회복 하러다 선수 시절 명성까지 잃게 생겼다”, “그간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떠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었다.

날선 댓글도 댓글이지만 홈페이지 회원들이 불량게시물에 적용하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서 한때 이 글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 자동차 본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IA타이거즈 선동열입니다.

지난 삼일 동안 저의 재계약 소식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픔을 안겨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이 참담합니다. 무엇보다 야구 커리어가 끝났다는 것에 가슴이 미어지 옵니다.

지난 2011년 말 고함방인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게 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실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상처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은 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것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수 때부터 저를 깨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닌 누가 사령탑에 앉든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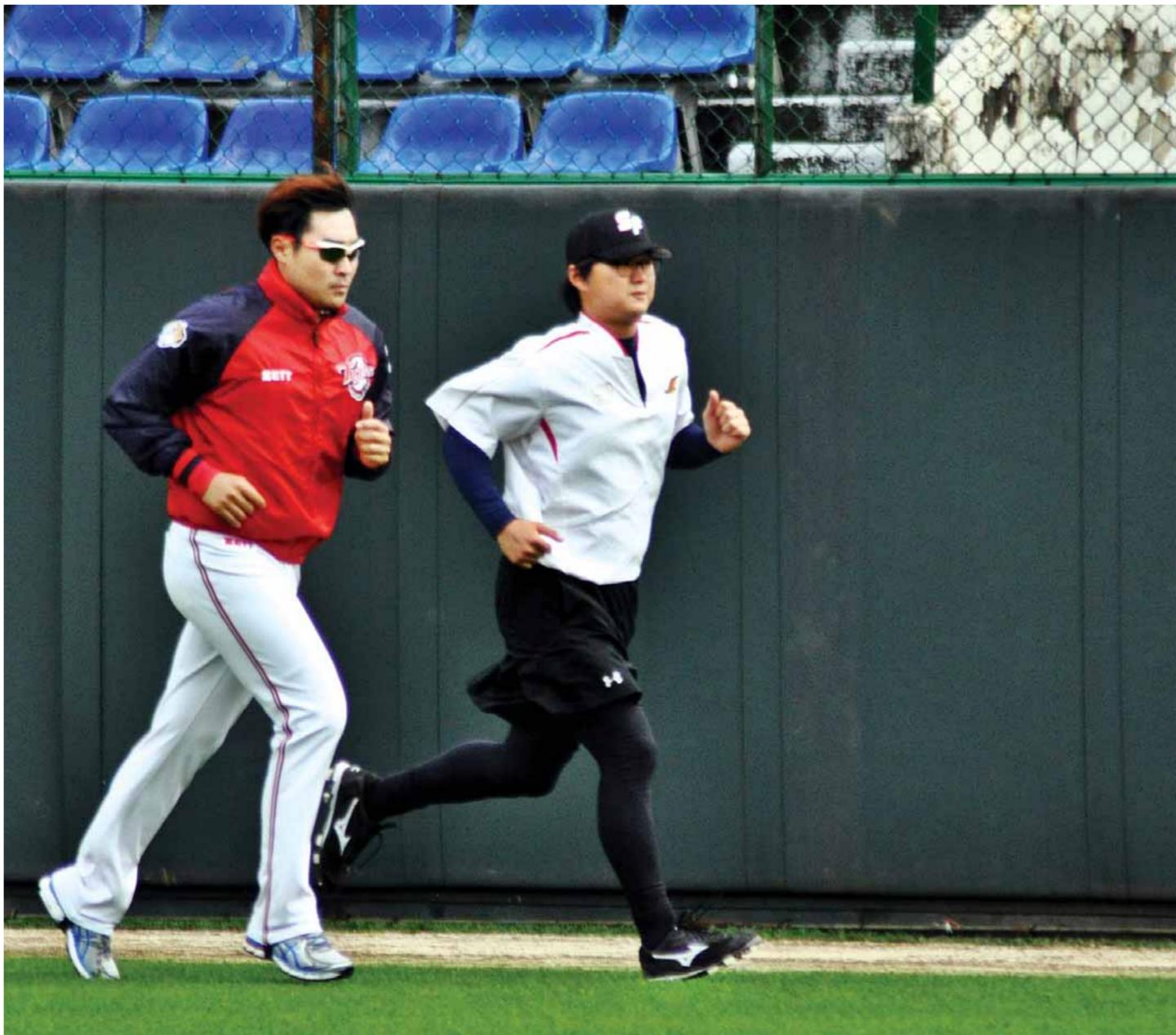
저는 팀 체질 개선과 전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일에 심혈을 쏟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전과 백업 선수간의 기량차이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적상으로도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를 앞세워 내다보면 강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야와 내야 팀에 큰 전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선동열 감독이 구단 홈페이지에 올린 반성문

앞에서는 선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3년의 실패와 책임없는 미래에 대한 팬심은 여전히 차가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5시즌 복귀를 노리고 있는 투수 광정철(왼쪽)과 한기주가 22일 무등경기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15 시즌 지금부터”

### 25일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 마무리 훈련·해외 전훈 등 진행

다시 뛰는 KIA, 2015 시즌이 시작된다. 올 시즌도 8위로 끝나면서 KIA의 가을은 일찍 저물었다. 프로야구 가을 잔치가 전개되고 있지만 KIA는 2015시즌을 위해 일찍 스파이크 끈을 조여맨다.

시즌이 끝난 후 휴식을 취했던 선수들이 25일 챔피언스필드에 모인다. 올 시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준비된 것이다.

‘2014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가 2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진행된다. 이날 KIA 선수들은 팬들 앞에서 숨겨진 끼를 발산하며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사전 접수된 사연을 선수가 직접 읽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그라운드 OX 퀴즈, 팬사인회, 챔피언스 필드 런닝맨, 시즌 영상 상영, 신인선수 소개, 레크리에이션, 열혈 팬 미니 토크쇼, 장기자랑, 응원피켓 콘테스트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타이거즈 보틀(플라스틱 투명 물병)’이 증정되고,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를 비롯한 우승자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주어진다.

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며, 참가 신청 팝업창은 23일 오후 12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우천시에는 행사가 팬사인회로 대체된다.

팬들과의 만남을 끝낸 선수단은 26일부터 마무리 훈련에 들어간다. 29일부터는 해외 전지훈련이 진행된다. 마무리 캠프 선수단은 29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에 캠프를 차리고 시즌 마무리와 내년 시즌 준비를 시작한다. 캠프는 내달 28일까지 계속된다.

복귀를 향한 재활조들의 움직임도 바쁘다. 휴식 기였던 22일 재활조인 투수 광정철·한기주·정용운·차명진이 무등경기장에 모였다. 재활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훈련을 소화한 것이다. 함평 재활저스 필드 대신 무등경기장을 훈련지로 삼은 이들은 기본 훈련과 볼펜 피칭을 소화하면서 복귀에 속도를 냈다.

선동열 감독 재계약 논란으로 안팎으로 뒤숭숭한 KIA지만 2015시즌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포스트 김연아’ 나주출신 박소연 그랑프리 출격

### 美 시카고로 출국

‘포스트 김연아’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피겨스케이팅 기대주 박소연(17·신목고)이 첫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를 향한 도전의 첫발을 내디딘다.

박소연은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2014-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가 열리는 미국 시카고로 출국한다.

김연아의 활약을 지켜보며 꿈을 키운 ‘김연아 키드’ 박소연은 김연아의 은퇴 이후 한국 피겨를 이끌어갈 가장 큰 재목으로 꼽히는 선수다.

2012년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은메달을 획득, 김연아의 금메달 이후 최고 성적을 냈고 올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김연아를 제외한 한국 선수가

운데 두 번째로 높은 기록(176.61점)을 작성하며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 시즌 시니어 무대에 진입한 박소연은 한국 선수 가운데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두 개 대회에 초청 받았다. 그 첫 무대가 24일 개막하는 1차 대회다.

박소연은 쇼트프로그램 곡으로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프리스케이팅 배경 음악으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OST를 준비해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다.

파워 넘치는 스케이팅이 장점인 박소연은 세부 연기의 완성도를 끌어올려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올라선 기량을 인정받겠다는 각오다. 박소연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에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27일 새벽에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각각 펼친다. /연합뉴스



## 독일도 인정한 손흥민 ‘벼락 골’

### 분데스리가가 8R ‘최고의 골’ 선정

‘손세이서’ 손흥민(레버쿠젠)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가 8라운드를 빛낸 ‘최고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는 22일(한국시간) “정규 리그 8라운드에서 멋진 골들이 많이 나왔지만 손흥민이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터트린 골이 ‘이번 주의 골’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분데스리기에 따르면 손흥민이 8라운드에서 터트린 골은 팬 투표에서 60%를 차지해 후보로 결합한 바이에른 뮌헨의 마리오 괴체(17%)를 크게

파돌리고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지난 주말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14-2015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4분과 전반 9분에 잇달아 골을 폭발했다.

“이번 주의 골”로 선정된 것은 전반 9분 터트린 28m짜리 중거리 슈팅이다. 손흥민은 골키퍼가 멀리 차내지 못한 볼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잡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슈투트가르트의 골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연합뉴스